

김영록 지사 “2028년 G20 정상회의 전남 유치 준비”

대통령 지방도시 추진 언급…국제행사 개최 잠재력 갖춰

‘2026년 전남 과학기술 진흥 원년’ 등 원대한 꿈 실현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오는 202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전남 유치를 준비하고, 2026년 전남 과학 기술 진흥 원년을 만드는 등 응대한 꿈 실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할 수 없다. 목표를 원대하게 품어 노력하면 그 과정에서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달성하면 더욱 좋은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확정됐고, 대통령께서 지방도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며 “AI 에너지 수도 전남’, ‘기후변화 전남’ 등을 추진하면서,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만큼 G20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자”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부족이 문제인데 경주도

에이페(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부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전문가 등 자문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유치전에 뛰어들도록 하자”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대규모 과학연구시설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에 나주가 1순위로 선정되고, 고흥에서는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 민간 우주발사산업 본격화와 세계 우주강국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전남 과학기술 진흥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사를 지으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10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5배였는데 그만큼 기술발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도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이 이뤄지고 있다”며 “2GW 규모로 단지화·대형화하면서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농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밖에도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와 중소기업 대책 보강·강화 대책 마련, 국내

최초 관광도로로 지정된 여수~고흥 백리 섬섬길을 남해안으로 연장해 완도, 진도, 목포, 영광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육성, 12월 장흥서 운영이 시작

되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다목적체육관이 전남 체육에 좋은 효과를 내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지원 등을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총력

이달 공모 대비 지·산·학·연 협의체와 제안서 작성 돌입
22일 국회서 토론회…“전남 동부권 미래 신산업 중심지”

전남도는 정부의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에 발맞춰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체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호남, 영남, 충청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제시하고, 이 중 호남권을 ‘핵심광물(원료)·양극재’ 중심의 핵심 거점으로 특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니켈·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신규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12월 중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K-배터리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원료(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직결되며, 광양만권은 ‘원료소재니켈, 리튬·초소재전구체·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과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이차전지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과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계획 초안 작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협의체 및 TF를 구성·운영해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유관기관·기업 간 공모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와 TF를 중심으로 공모 대응과 산학연 협력 강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광양만권을 포함한 특화단지 육성계획 구체화, 기업수요 기반의 전문인력 양성, 중앙정부·국회·산업계와의 협력 체널 상시화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한다.

또 원료소재 생산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강점을 살려 배터리 제조사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정부 발표는 K-배터리 산업이 제조 경쟁을 넘어 공급망 경쟁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광양만권이 국가첨단 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기업 투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포함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이를래 전남 동부권이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차전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는 22일 국회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고구마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전남농기원, 부산물 활용 연구

광주시, 보육정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무상보육 확대·돌봄사각 해소·교직원 처우개선 등 호평
교육부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지자체 부분 최고상

광주시가 추진한 무상보육 확대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정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지자체 부분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세 아동까지 월 5만원을 지원하면서 대상을 넓혔다. 외국인 아동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적용해 포

강성희 “내란 1년,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시도 1년을 맞아 “내란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 3법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강성희 위원장은 2일 발표한 입장에서 “12·3 내란 시도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사실이 남아 있고, 책임도 온전히 묻지 못한 상황”이라며 “여제 법제사법위원회 1 소위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조리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시행과 전국 최초로 민간·가정·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통일시켜 인상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였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대체교사 파견을 권역별로 집중 관리하고 비단임교사를 33명에서 100명으로 늘렸다.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과 급식비 지원 단가를 2022년 3100원에서 2024년 3160원, 올해 3260원으로 늘렸다.

강기정 시장은 “촘촘한 돌봄지원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gwangnam.co.kr

사와 고위 경찰에 대한 모든 범죄 수사를 가능하게 해 공직사회에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법개혁 3법 통과를 “내란의 후과를 정리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하고, 다음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사법 정의 회복, 권력의 실질적 분산,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시민 참여 민주주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

‘북구청장 도전’…문상필 부대변인, 6일 출판기념회

광주동신고 체육관서 북구지역 성장 새로운 길 비전 제시



노력의 기록이며, 북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의 실천 전략을 담았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오는 6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문상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동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자신의 저서 ‘골목에서 찾은 미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골목에서 찾은 미래’는 시의원 재임시절과 광주 공동체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정의 경향과 고민과 선택, 그리고 북구의 미래를 향한 다짐을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책에는 지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과 북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약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홍기월 의원 “광주교육청 전산망, 재난 대비 부족”

교육부 예산 8배 급증에도 전산센터 ‘블랙아웃’ 위기



홍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지방교육 행정정합시스템 운영’ 예산은 2025년 본 예산 기준 약 57억원으로, 전년도 7억원 대비 5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부 예산 8배 급증에 대비해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구축하는 세종 DR 센터 분담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어 “정작 광주 교육행정의 심장인 시교육청 전산센터의 관리 실태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아이돌봄 지원사업, 10시 출근제와 충돌 우려”

이명노 시의원, 대책 촉구



위협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아이돌봄 소통의 날’ 행사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0시 출근제”가 되면 지원사업의 파견 시간이 줄어들어 월 60시간 근로 기준을 충족 못하게 되고,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광역센터 또는 제공기관이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

장승기 기자 sky@